

# 민속학 연구의 든실한 밑거름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한국민속사입문》을 읽고

김광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민속학

한국 민속학계의 원로학자 두 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논문집이 나왔다. 하나는 임동권 박사의 고회를 기념하는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성병희 박사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한국민속사입문》이다.

## 도시 속의 민속문화 심도깊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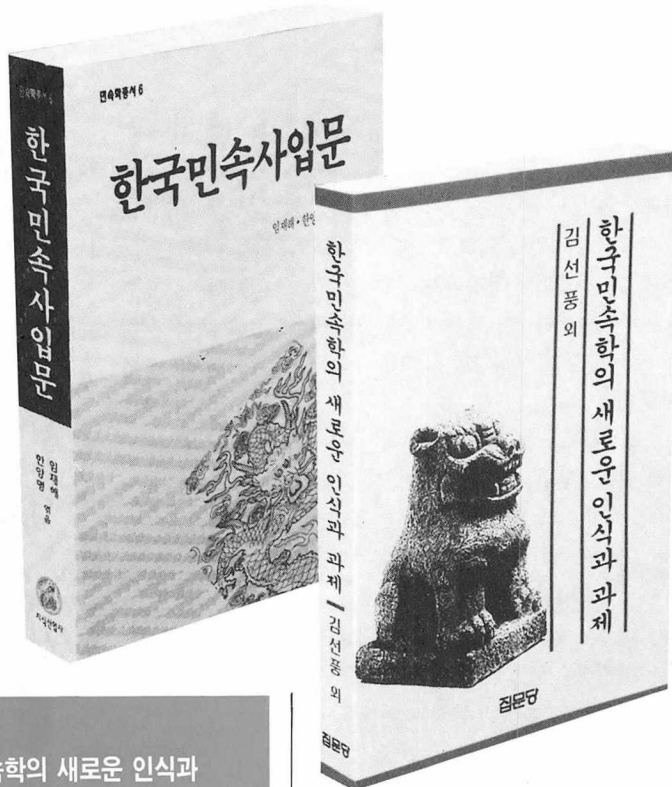
앞의 책은 한국 민속학의 연구 방법, 한국 민속학의 연구 과제, 한국 민속학의 미개척 분야, 해외에서 본 한국 민속학 등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중심과제는 2,3장에서 다루어졌다.

한국민속학의 연구과제에서는 사회학·종교학·무용학·무속·불교·도교·박물관학·문화인류학·도시민속학·비교민속학 등 여러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 및 연구 방법의 원용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도 불교·도교·박물관학 등의 분야 외의 논점은 학계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쪽에서는 먼저 불교민속의 개념을 규정할 다음 그 대상과 범위를 논하였고, 도교에서는 전래와 수용과정, 그리고 세화·직성기양·좁생이 보기·칠석제·칠성제·경신수야 등 민속 항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박물관학에서는 민속 물질의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박물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오늘날 모든 사물이 급변해가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도시에 잔존하는 민속문화도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에도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한국민속학의 미개척 분야》에서는 수렵·어로·해녀·화전·도시·교역·놀이·축제·생업·언어·혼인·가신·동물·식물·유량민 등의 분야에 민속학적 연구방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들 가운데에도 화전이니 유량민 그리고 식물민속 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언급이 거의 없었던 만큼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둔 셈이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젊은 후학들이 자기들의 연구 분야를 선택, 개척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에서 든 논의들의 대부분이 학계로서는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는 민속학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접목한 점이 돋보이고 《한국민속사입문》은 민속학의 여러 분야를 구성하는 테마들의 역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두 책은 우리 민속학계의 연구 수준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끌 밑거름이다.

처음으로 시도된 데다가, 지면의 제약 등도 따랐던 관계로 충분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없지 않으나, 우선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이다.

## 문학·종교·예술 등의 민속테마 총망라

《한국민속사입문》에는 민속학의 여러 분야 곧 문학·종교·사회·예술·물질 등에 포함되는 각각의 테마들이 지닌 역사를 훑어내린 내용이 담겨 있다. 문학에서는 신화·전설·민담·민요·무가·속담·수수께끼를, 종교에서는 무속, 공동체 신앙, 가신신앙, 점복, 기우제, 풍수신앙, 장승·숫대를, 사회에서는 촌락·가족·일생의례·세시풍속·놀이·두레가·예술에서는 민악(民樂)·민속미술·민속극·판소리, 유랑예인을, 민속물질

민족사의 체계를 세움에 있어, 어떤 기준을 세우고 모든 분야가 이에 따라 역사를 서술해나갈 것인가, 각 분야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리해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택한다면 그 공감대는 어디쯤에 두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모아져야 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학계에서 민속사 체계의 정립을 위한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에는 각 분야가 정리한 역사체계를 모아서 축조 심의하는 귀납적 방법과, 총의에 의해서 결집된 모델에 따라 각 분야가 역사적 체계 정립을 시도해보는 연역적 방법의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 민속사 체계정립 위한 계기

두 원로학자를 기리기 위한 2개의 출판물이 학계의 새로운 문제들을 다룬 점은 우리나라 민속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의 민속연구는 개별 학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이루어져왔던 까닭에 총체적인 시각에서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지향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두 책의 발간이 우리 민속학계의 차원을 한층 더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김선훈 외 지음) 집문당/A5신/478면/15,000원  
《한국민속사입문》(임재해·한양명 엮음) 지식산업사/A5신/714면/20,000원

에서는 의생활·식생활·농업기술·어업기술, 화전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 각 테마는 30여개에 이르러 민속학의 각 분야가 총망라된 셈이다.

이들 가운데 민담, 민요, 세시풍속, 의생활, 식생활, 농업기술, 어업기술 등의 분야는 독립과학으로서 독자적인 역사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나머지 분야의 대부분은 그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분야 자체가 미개척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바른 민족사의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대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민속학계가 이에 대해 논의를 펼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민속관계 저술들은 왕조 중심의 정치사를 따라 서술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고대·중세·근세·현대 등 모호하기 짝이 없는 시대구분에 젖어 있거나,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등 연장 발달 단계를 따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나마 이러한 기준들은 모두 남의 나라 것을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오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일구어 왔다면 우리 문화 발전에 걸맞는 시대구분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